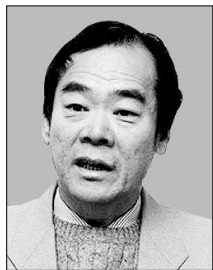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이다. “지휘관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인분을 먹이겠는가?” 국방부 장관이 사건의 현장으로 가서 훈련소장과 기타 지휘관들에게 질책한 말이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말대로 인격을 갖춘 지휘관이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각종 언론매체나 네티즌 등 여론은 한결같이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특검을 벌이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급부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인격권을 박탈하는 무지막직한 말이다. 신병이 전장에서 소모될 소모품임을 강조하고, 고된 훈련만이 전장에서 살아남는 조건이 된다고 역설한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막상 전투에서 전사를 하면 그나마 박탈된 인격은 폐품으로 처리된다.

부상자에 대한 군병원의 처리는 민간에서의 응급개념을 뒤집는다. 치료우선 순위는 경상자와 계급. 당연히 장교 우선이고 경상자는 빠른 치료 후 전장에 재투입한다. 이렇게 본다면 군인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열린마당 클리닉 원장

군대의 가학성과 인격

의 존재이유나 훈련의 과정, 목표가 가학적인 요소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이 일반인의 상식과 가치가 배치되는 충돌점이다. 전장에서 서로 적군을 죽인다는 것은 가장 가학적인 가혹행위인데 이를 여러 가지 사회화적인 논리로 타당성을 설명하지만 정신의학적인 개인 내면의 욕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학성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에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 즉 파괴적인 공격 욕구와 생산적인 성 욕구가 병존하며, 이런 상반된 욕구의 절묘한 조화와 평

행이 생명 유지와 인격 발달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일반인은 공격성의 표출을 억압하거나 순화·대리 충족시킴으로써 직접 파괴로 이어가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건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격성을 자극하고 적을 향해 폭발시킬까에 집중한다. 일반인과는 반대로 가학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양태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적군을 소멸시키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군인은 폭력의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전쟁’이라는 가상 전체 하에서 철저부심 훈련해야 한다. 그 가학적 공격성 향상에 여러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군대는 조직은 당연히 일반인의 상식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군의 잦대로 일반인을 재단해서도 안되며 일반인의 가치체계로 군을 재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은 공격성의 표출을 다른 한쪽은 공격성의 억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사람에게 인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싶다. 이 인격에 모욕을 가하여 분노를 촉발시키는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다. 훈련을 시키는 지휘관의 잠재의식이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대 명제를 부러해 본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처벌이야말로 하고 지휘관은 마땅히 그런 기술을 익혀야 옳다.



불자의 눈

한 비구니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 그 비구니 스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의 판결이 난 문제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강경장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한 비구니 스님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질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까지 치닫고 있다.

물론 스님은 생명을 버릴 생각을 해서 안되고, 또 그렇게 생명을 잃도록 방치해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스님이 모두 한 걸음 물러서는 길 밖에 없다.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구태여 하는 이유는 이 상식이 너무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대해, 단지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목숨을 건 이유에

‘단식의 뜻’ 바로 읽어야

대해 이해하고, 최소한의 조치나 목숨을 걸 이유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믿을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그 결과는 도통농을 비롯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사이비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몸짓이 바로 지울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인 것을 정부는 모른다는 것인가? 그러한 사이비 타당성에 의해 수없이 저질러진 무차별한 환경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무감각해 왔던 정부와 국민 모두를 일깨우는 처절한 몸짓이 바로 지울스님의 단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납득할만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울 스님은 우리 온 국민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 소중한 분이요, 그 생명을 당신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잡게 한 천성산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천성산보다 무거운 당신의 생명을 손상하지 말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잡게 천성산을 돌보는 마음으로 자중자하시기를 손모아 기원한다

■ 성대웅(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보시

보시가 보살의 정도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배운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베를머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끊은 뒤에 배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시가 일상화 된 세상, 그곳이야말로 보살이 사는 정도일 것이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도가 될 수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가? 욕망의 구렁텅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연꽃 같은 보살의 삶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베를머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욕망을 벗었느냐 결박당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내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욕망의 불길은 친구도 아내 혹은 남편도 태우는 것이다. 반대로 ‘내 것’이길 즐기는 사람은 늘 고요하고 즐겁다. 나 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여백의 삶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이 핀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지는 단순히 베를머 사는 것이 아니라 베를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조차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무주상 보시라고 하거니와, 하노라는 드러냄 없이 보시를 함으로 그 공덕이 우주에 풀고 후 회향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 해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세계가 눈물겹다. 재앙의 땅을 복전(福田)으로 바꾸기 위한 따뜻한 보시행이 줄을 잇고 있다. 남의 재앙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능히 끊을 수 있는 것, 이 역시 보시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란 가능한 일이다.

아직 지진해일 피해 복구 성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내 것’을 ‘네 것’으로 바꾸는 용기를 내라고 자신에게 명령 해 볼 일이다. ■ 임연태(연경부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자회 활동 격려 큰 힘 돼

달리는 큰법당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시내버스와 택시에서 불교방송을 방송하며 운행하는 운전인 불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들은 불교신행을 위하여 사찰이나 불교교육기관에 가고 싶어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업운전인과 집안에 있는 노약자들, 장애를 가지신 분,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느라 신협활동을 할 수 없는 모든 분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방송으로 포교하는 불교방송을 홍보하며 신행하는 불자들이다.

이렇게 소박한 뜻으로 활동하는 만큼 작은 격려도 큰 힘이 된다. 중요하고 비중 있는 사안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같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미약한 활동들도 불교언론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변용규(롯데뉴스)

왜 지울 스님에게 관심없나

진짜에 지울 스님의 단식에 관심을 가졌어야한다. 지울 스님이 단식을 쫓다 해도 과연 제대로 건강해 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이다. 지울 스님의 문제는 지울 스님의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나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당사자국민 모두와 정부와 승가까지

도들이 다 모른 채 하며 관심 밖으로 두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제 와서 관심을 가져봐야 스님 한 분의 목숨으로 바꿈질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이 과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것이 되겠는가!

대국민(롯데뉴스)

경주 남산은 우리의 역사다

경주 남산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기사510호 보도를 읽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힌다.

남산은 불교문화재의 보고다. 물론 그곳에도 차도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기사를 읽어보면 남산에 영향을 떨치는 직선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선구간을 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다 차도를 높이 만들어 그 밑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의아하다.

남산 일대는 야트막하다. 도로가 높게 올라오면 산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시체말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을 잔뜩 품고 있는 경주 남산지구에 미리 발굴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갈아엎어 도로를 뚫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

을까. 도로건설 예정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북명사지라는 절터가 있다고 한다.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유적분포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라면 굳이 시굴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 곳에 유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아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정부에서는 제발 이제부터라도 개발을 할 때는 경제성과 문화재적 가치 등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검증하고 신중하게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조성은(서울 광진구 노유동)

행자기간 늘린다고 달라질까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행자교육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안을 채택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행자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승가의 질이 높아질까. 행자기간 보다는 정말로 중생을 위해서 자기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먼저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행자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1년만 살아보면 금방 근기를 알 수 있다. 스님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이다.

이동연(롯데뉴스)

‘연대’ 민영

심민섭

◎ 불교인은 다종교에 비해 신행활동이 왜 부족한가?



핑계가 그럴듯 한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혜천법사

◆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함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Advertisement for Simami Tongjoga (심마니 토종오가피) featuring product images, testimonials, and contact information. Text includes '이것이 명품이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and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